

한국사 기출해설

해설 - 설민석 교수(단꿈교육)

1. 다음 유적이 형성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 봉산 지탑리 | · 서울 암사동 |
| · 양양 오산리 | · 부산 동삼동 |

- ① 사람들이 이동 생활을 하며 동굴, 바위그늘, 막집에서 살았다.
- ② 농경에 의한 식량 생산 경제를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 ③ 비파형 동검과 고인들이 만들어졌다.
- ④ 덩이쇠가 생산되어 여러 나라에 공급되었다.

1. 정답 : ②

해설 신석기 시대의 모습 (선사시대)

제시된 유적지는 신석기 시대 유적지이다.

②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곡물을 경작하고 재배하는 농경 생활을 하였다. 신석기 시대 유적지인 황해 봉산 지탑리 등에서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면서 잡곡류를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해설 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무리를 지어 이동 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③ 청동기 시대에는 비파형 동검과 고인들이 만들어졌다. 청동기 시대에는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군장)가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청동 검, 청동 거울 등으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었다. 또한 당시 지배층의 무덤이었던 고인돌을 통하여 군장이 소유한 부와 권력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변한, 가야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왜 등에 수출하였으며, 교역할 때 덩이쇠를 화폐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2. ㉠과 ㉡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고국원왕이 근초고왕의 군사와 벌인 전투에서 전사했다. |
| ㉡ 비유왕이 눌지마립간과 동맹을 맺었다. |

- ① 미천왕이 낙랑군을 축출했다.
- ② 한성이 함락당하고 개로왕이 살해되었다.
- ③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겼다.
- ④ 진흥왕이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고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다.

2. 정답 : ③

해설 371년(고구려 고국원왕 전사)~433년(나·제 동맹 체결) 사이에 전개된 사실(고대 - 정치사)

제시된 자료에서 ㉠은 백제 근초고왕이 371년에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 고국원왕이 전사한 내용이며, ㉡은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대하여 백제 비유왕과 신라 눌지 마립간이 433년에 나·제 동맹을 체결한 내용이다. 즉, 371년~433년 사이에 전개된 사실을 고르는 문제이다.

③ 고구려 장수왕은 427년에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겼다.

오답해설 ① 고구려 미천왕은 중국이 5호 16국으로 나뉘어 혼란한 틈을 타 대외 팽창을 시도하였다. 313년에 낙랑군을 공격하여 중국 세력을 완전히 몰아냈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여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미천왕의 낙랑 공격은 (가) 이전에 전개된 사실이다.

②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위협을 느낀 백제 개로왕은 북조의 북위에 사신을 보내 군사 원조를 요청하였지만 북위는 백제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475년에 백제는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 수도인 함성이 함락되고, 개로왕은 전사하였다. 백제 개로왕의 전사는 (나)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다.

④ 신라 진흥왕은 551년에 백제 성왕과 연합하여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한 뒤, 553년에는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하류 지역까지 차지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555년(진흥왕 16) 기록에는 진흥왕이 북한산을 순행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토대로 555년에 북한산 순수비가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진흥왕의 북한산 순수비 건립은 (나)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다.

3. 가야 연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금관가야가 전기 가야 연맹의 중심이었다.
- ② 5세기 초 고구려와 신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타격을 입었다.
- ③ 후기 가야 연맹은 소백산맥 너머 호남 동부 지역까지 권역을 넓혔다.
- ④ 백제 멸망 후 부흥군을 도와 백강 전투를 벌였으나 당나라 군대에게 패배했다.

3. 정답 : ④

해설 가야 연맹(고대 - 정치사)

④ 백제 멸망 이후 663년에 백제 부흥군은 왜의 지원을 받아 나·당 연합군과 백강 전투를 전개하였으나, 크게 패배하였다. 따라서 가야 연맹과 백강 전투는 관련이 없다.

오답해설 ① 가야 연맹은 각 소국이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유지하였다. 전기 가야 연맹은 김해의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후기 가야 연맹은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② 전기 가야 연맹의 맹주인 금관가야는 5세기 초에 고구려와 신라의 연합군이 왜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큰 타격을 받아, 낙동강 서쪽 연안으로 영토가 축소되었다.

③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인 대가야는 6세기 초에 소백산맥 서쪽까지 세력을 확장하여 일시적으로 남원·임실 지역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4.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왕이 관산성에 쳐들어왔다. 신주(新州)의 군주 김무력이 병사를 이끌고 나아가 싸웠는데, 비장인 삼년산군의 고간 도도가 빠르게 공격하여 왕을 죽였다.

—『삼국사기』

- ①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 ②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했다.
- ③ 관동제의 골격을 마련하고 낙랑군·대방군과 공방을 벌였다.
- ④ 화랑도를 통해 양성한 인재를 관료로 선발했다.

4. 정답 : ①

해설 백제 성왕(고대 - 정치사)

제시된 자료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554년(진흥왕 15)의 기록으로, 백제 성왕이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하였다가 전사한 내용이다. 따라서 밑줄 친 ‘왕’은 백제 성왕(523~554)이다.

① 백제 성왕은 538년에 대외 진출에 용이한 사비(부여)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면서 중흥을 꾀하였다.

오답해설 ② 고구려는 소수림왕(371~384) 때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백제는 고이왕(234~286) 때 율령을 반포하여 중앙 집권 국가의 토대를 형성하였고, 침류왕(384~385) 때 불교를 공인하였다. 신라는 법흥왕(514~540) 때 율령을 반포하고,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③ 백제는 고이왕 때 중앙에 6좌평을 두고, 16관동제를 정비하였다. 또한 『삼국사기』 「백제본기」 246년(고이왕 13) 기록에 따르면 고이왕이 낙랑을 공격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며, 『삼국지』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방군의 기리영 지역을 공

격하였다는 신지를 고이왕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④ 신라 진흥왕(540~576)은 원시 청소년 집단이던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발전시켰다. 화랑도와 백제 성왕은 관련이 없다.

5. 밑줄 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나라는 사방 2천 리에 이른다. 주와 현 및 객사와 역참이 없고 곳곳에 촌락이 있는데 모두 말갈 부락이다. 그 백성은 말갈이 많고 토인이 적다.

-『유취국사』

- ① 대가들의 호칭에 말, 소, 돼지, 개 등 가축의 이름을 붙였다.
- ②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 ③ 왕족과 귀족을 돌무지덧널무덤에 장사지냈다.
- ④ 고구려 유민이 촌장이 되어 지방을 다스렸다.

5. 정답 : ④

해설 발해(고대 - 정치사)

제시된 자료에서 ‘곳곳에 촌락이 있는데 모두 말갈 부락이다.’, ‘그 백성은 말갈이 많고 토인이 적다.’ 등의 내용을 통하여 밑줄 친 ‘나라’는 발해임을 알 수 있다.

④ 발해에서는 고구려인들을 토인이라고 하였다. 토인은 도둑, 자사, 수령과 같은 지방 행정직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말갈 부락에서도 촌장이 되어 마을을 직접 지배하기도 하였다.

오답해설 ① 부여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었다. 이들 가(加)는 저마다 따로 행정 구역인 사출도(四出道)를 다스렸는데, 이는 왕이 직접 다스리는 중앙과 함께 5부를 이루었다.

② 옥저는 며느리가 될 여자 아이를 남자 집에서 데려다 키운 후, 성인이 되면 남자 쪽에서 여자 쪽에 예물을 주고 결혼하는 풍습인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③ 돌무지덧널무덤은 나무판을 덧대어 시신을 안치하는 큰 상자를 만들고, 그 위에 돌을 쌓아 만든 무덤으로 4세기경부터 6세기 초까지 만들어졌다. 신라 왕과 귀족들의 무덤이며, 구소장 도굴이 어려워 천마총·금관총 등 여러 고분에서 금관을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6. 각 승려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장이 세속오계를 정하고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는 표문을 작성했다.
- ② 원효가 중국 유학에서 돌아와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의 정수를 제시했다.
- ③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하여 선종을 포섭함으로써 화엄종을 억압하고자 했다.
- ④ 지눌이 불교계를 개혁하기 위해 결사운동을 펼치고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는 이론체계를 제시했다.

6. 정답 : ④

해설

각 승려의 활동(통합형 - 문화사)

④ 고려 시대의 승려인 지눌은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참선, 노동에 고루 힘써야 한다는 개혁 운동을 벌여 수선사 결사를 조직하였다. 그는 선종과 교종의 사상적 갈등을 극복하고,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는 선·교 일치의 사상 체계를 정립하였다.

오답해설 ① 삼국 시대의 승려인 원광은 세속 오계를 정하고,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는 결사표(乞師表)를 작성하였다. 삼국 시대의 승려인 자장은 선덕여왕에게 황룡사 구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② 삼국 시대의 승려인 의상은 당나라에서 유학에서 돌아와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여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며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다. 원효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분파 의식을 극복하고자 노

력하였으며, 『대승기신론소』, 『십문화쟁론』, 『아미타경소』 등을 저술하였다.

③ 고려 시대의 승려인 의천은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뒤,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여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였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행 방법으로 교관검수를 제시하였다.

7. 고려의 중앙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초기에는 광평성, 순군부 등 신라의 관제가 존속되었다.
- ② 상서성에 소속된 6부가 각각 국무를 분담했다.
- ③ 도병마사는 추부라고 불리며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을 관장했다.
- ④ 식목도감은 백관을 규찰·탄핵하는 언관의 역할을 맡았다.

7. 정답 : ②

해설 고려의 중앙 정치 제도(고려 - 정치사)

② 고려의 상서성은 실제 정부를 나누어 담당하는 6부(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를 두고 정책의 집행하였다.

오답해설 ① 고려는 초기에 광평성, 순군부, 내봉성 등 태봉의 관제를 토대로, 당나라·송나라의 관제를 모방하여 중앙 관제를 마련하였다.

③ 고려의 중추원은 추부라고도 불렸으며,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다. 도병마사는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로 주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였다.

④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인 어사대의 관원들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더불어 대간으로 불렸다. 대간은 정책이나 관리 임용의 잘잘못을 비판하면서 정치 운영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였다. 식목도감은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로 주로 대내적 법제나 각종 시행 규칙 등을 논의하였다.

8. 밑줄 친 ㉠의 집권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신 이의민은 성품이 사납고 잔인하여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을 능멸하여 주상의 자리를 흔들고자 하니 신(臣) ㉠ 등이 폐하의 위엄에 힘입어 일거에 소탕하였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시어 태조의 바른 법을 따라 빛나게 중흥을 여소서. 삼가 열 가지 일을 조목으로 나누어 아뢰입니다.

—『고려사』

- ① 무신정권을 반대하는 김보당, 귀법사 승도의 반란이 일어났다.
- ② 교정도감이라는 독자적인 집정부가 만들어졌다.
- ③ 정방이 설치되어 인사 문제가 처리되었다.
- ④ 서방에서 문신들이 숙위하며 정책을 자문했다.

8. 정답 : ②

해설 최충헌 집권기에 전개된 사(고려 - 정치사)

제시된 자료는 『고려사』 최충헌 열전에 기록된 내용이다. ‘적신 이의민을 소탕’, ‘열 가지 일을 조목으로 나누어 아뢰입니다.(봉사 10조)’ 등의 내용을 통하여 밑줄 친 ㉠은 최충헌임을 알 수 있다. 최충헌은 1196~1219년까지 집권하였다.

② 최충헌은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정치 기구로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그 우두머리인 교정별감이 되어 최

고의 권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경대승 사후 폐지되었던 도방을 부활시켜 사병으로 삼았다.

오답해설 ① 이의방 집권기(1170~1174)인 1173년에 동북면병마사 김보당이 의종을 복위한다는 명분으로 난을 일으켰고, 1174년에 문벌 귀족의 후원을 받던 귀법사 등 교종 계통의 승려들이 난을 일으켰다.

③, ④ 1219~1249년까지 집권한 최우는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또한, 서방을 설치하여 문학과 행정 능력을 갖춘 문신들이 정책을 자문하도록 하였다.

9. 공민왕이 펼친 개혁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철을 제거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했다.
- ②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회복했다.
- ③ 사림원을 설치하고 신흥사대부를 등용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 ④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신들을 억압했다.

9. 정답 : ③

해설 공민왕의 개혁 정치(고려 - 정치사)

③ 충선왕은 사림원을 설치하고 신흥 사대부를 등용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사림원은 주로 왕명의 출납과 문서 작성을 담당하고, 인사 행정을 관장하였다.

오답해설 ① 기철은 원나라 순제의 제2황후가 된 기황후의 오빠이다. 공민왕은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하였다.

② 공민왕은 1356년에 동북면 병마사 유인우로 하여금 쌍성총관부를 공격하도록 하여 무력으로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

④ 공민왕은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토지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강제노 노비가 된 사람을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10. 고려와 몽골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개경으로 환도했다.
- ㉡ 고려가 몽골과 연합하여 강동성에서 거란족을 몰아냈다.
- ㉢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이 합쳐져 첨의부가 되었다.
- ㉣ 처인성에서 김윤후가 쓴 화살을 맞고 살리타가 전사했다.

- ① ㉡-㉣-㉠-㉢
- ② ㉡-㉣-㉢-㉠
- ③ ㉣-㉡-㉠-㉢
- ④ ㉣-㉠-㉢-㉡

10. 정답 : ①

해설 고려와 몽골과의 관계(고려 - 정치사)

㉡. 강동성의 역은 1219년에 전개되었다. 거란군이 몽골군에 쫓겨 고려에 침입하였으나 고려군의 반격에 쫓겨 강동성에 포위당하였다. 고려는 몽골군, 동진국의 군대와 연합하여 강동성을 함락하고, 거란군을 물리쳤다.

㉢. 처인성 전투는 제2차 몽골 침입 때인 1232년에 일어났다. 몽골군이 용인 처인성을 공격하자 승려 출신 김윤후는 부곡민과 합세하여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 개경 환도는 1270년에 일어났다. 고려는 독립과 풍속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 개경 환도 이후 고려는 격식과 호칭이 제후국의 지위로 격하되었다.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은 첨의부로 합쳐지고, 중추원은 밀직사로, 6부는 4사로 개편되었다.

11. 조선 시대 사회제도와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송은 원칙적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었다.
- ②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처벌이 따랐다.
- ③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삼강오륜을 어긴 것을 강상죄라 하여 중대 범죄로 취급하였다.
- ④ 민간인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범죄가 발생하면 『경국대전』과 명의 형법 규정인 『대명률』을 적용하였다.

11. 정답 : ②

해설 조선 시대 사회 제도와 법률(조선 - 사회사)

② 조선 시대에는 동일한 범죄라도 신분에 따라 처벌이 달랐다. 왕족이나 공신, 고급 관료는 형이 감면되거나 면제되기도 하였다. 반면 천인이 양인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더욱 엄한 벌을 받았다.

오답해설 ① 조선 시대에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제기 할 수 있었다.

③ 조선 시대의 범죄 가운데 가장 무겁게 다루었던 것은 반역죄와 유교 윤리를 어긴 강상죄였다. 중대한 범죄는 연좌제가 적용되어 가족이 함께 처벌을 받았고, 때로는 해당 군·현의 호칭이 강등되거나 수령이 파면당하기도 하였다.

④ 조선 시대에는 민간인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범죄가 발생하면 『경국대전』의 형전을 기본으로 하고, 명나라의 법전인 『대명률』을 적용하였다.

12. 조선 후기 설치된 5군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652년 남한산성에 금위영을 두고 광주 및 그 부근의 제진을 경비케 하였다.
- ② 1682년 서울에 총포병과 기병을 위주로 한 정예부대인 수어청을 두었다.
- ③ 1624년 서울과 경기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총융청을 설치하고 경기 내의 군인을 여기에 소속시켜 경기 지역의 제진을 통솔케 하였다.
- ④ 1626년 도성수비를 목적으로 기병과 훈련도감군의 일부를 주축으로 어영청을 설치함으로써 임란 중에 만들어진 훈련도감을 포함해서 5군영의 체제가 완성되었다.

12. 정답 : ③

해설 조선 후기 5군영(조선 - 정치사)

③ 인조는 이괄의 난 후인 1624년에 서울과 경기도 일대 방어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융청을 설치하고 경기 내의 군인을 소속시켜 남양, 수원 등 경기 지역의 제진을 통솔하게 하였다.

오답해설 ①, ② 숙종은 1682년에 국왕의 호위와 수도 방어를 위하여 금위영을 설치하였다. 인조는 1626년에 남한산성에 수어청을 두고 광주 및 그 부근의 제진을 통솔하게 하였다.

④ 임진왜란 때인 1593년에 만들어진 훈련도감, 인조 때 만들어진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숙종 때 금위영이 설치되면서 5군영 체제가 성립되었다. 어영청은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1623년에 설치되었으며, 기병과 훈련도감의 일부를 주축으로 설치된 군영은 금위영이다.

13.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비석을 세운 왕의 치세기에 편찬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원만하여 편벽되지 않음은 곧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편벽되어 원만하지 않음은 바로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 ① 『주자서절요』
- ② 『국조오례의』

- ③ 『동국병감』
- ④ 『동국문헌비고』

13. 정답 : ④

해설 영조 때 편찬된 서적(조선 - 문화사)

제시된 자료는 영조가 탕평책에 대한 의지를 알리기 위하여 성균관에 건립한 탕평비의 내용이다. 즉, 영조 때 편찬된 서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④ 영조 때인 1770년에 우리나라의 지리, 정치, 경제, 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되었다.

오답해설 ① 명종, 신조 때 활동한 이황은 주자의 중요한 서찰을 뽑아 『주자서절요』를 편찬하였다.

② 조선 성종 때인 1474년에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리한 『국조오례의』가 편찬되었다. 『국조오례의』는 제사 의식인 길례, 관례와 혼례 등의 가례, 사신 접대 의례인 빈례, 군사 의식인 군례, 상례 의식인 흉례의 다섯 가지 의례인 정리한 의례서이다.

③ 조선 문종 때는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전쟁사를 정리한 『동국병감』이 편찬되었다.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성군에는 교파와 약파가 있다. 교파는 향교에 다니는 자들이고, 약파는 향약을 주관하는 자들이다. 서로 투쟁이 끊이지 않고 모함하는 일이 갈수록 더하여 갔다. 드디어 풍속이 도에서 가장 나빠졌다.
-정약용, 『목민심서』

- ① 위 자료에서 교파는 구향을, 약파는 신향을 가리킨다.
- ② 향회를 통해 향촌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면서 향촌을 지배하였던 기존의 사족들을 구향이라고 하였다.
- ③ 신향들은 지금까지 지배층으로 군림하던 구향들과 향촌 지배권을 둘러싸고 경쟁하였다. 이를 ‘향전’이라 한다.
- ④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경제력을 확보한 일부 부농층은 사족들의 향촌 지배권에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향안에 이름을 올리려고 하였으며, 향회를 장악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성장한 이들을 신향이라 한다.

14. 정답 : ①

해설 조선 후기 사회 모습(조선 - 사회사)

제시된 자료는 지방의 전통 사족인 구향(舊鄕)과 새로이 양반으로 상승한 부농층인 신향(新鄕)이 향촌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향전을 보여주고 있다.

① 제시된 자료에서 교파는 신향이고, 약파는 구향을 가리킨다. 기존까지 지배층으로 군림하던 구향과 조선 후기에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새롭게 성장한 신향은 향회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이때 수령은 신향을 지원하여 사족을 견제하고, 관 주도의 향촌 질서를 강화시켜 나갔다. 이 과정에서 지방 사족의 지위가 흔들리고,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15. 다음은 조선 시대 편찬·간행된 책들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시기 순으로 나열한 것은?

- ㉠ 고려의 역사를 자주적 입장에서 정리한 『고려사절요』를 편찬하였다.
- ㉡ 지리서의 편찬이 추진되어 『신찬팔도지리지』를 편찬하였다.
- ㉢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동국통감』을 간행하였다.
- ㉣ 각 군현의 위치와 역사, 면적, 인구, 특산물 등 상세한 정보를 담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완성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15. 정답 : ③

해설 조선 시대에 편찬·간행된 책(조선 - 문화사)

- ㉠. 「신찬팔도지리지」는 세종 때인 1432년에 편찬되었다. 왕명을 받은 변계량의 주도로, 각 도에서 지리지를 편찬하여 전국 지리지로 완성하였다.
- ㉡. 『고려사절요』는 문종 때인 1452년에 편찬되었다. 기전체로 편찬된 『고려사』가 읽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읽기 쉬운 편년체 형식의 역사서 편찬이 요구되었다. 이에 『고려사』 편찬에 참여한 김종서, 정인지 등이 참여하여 편년체로 고려사를 정리하여 『고려사절요』를 편찬하였다.
- ㉢. 『동국통감』은 성종 때인 1485년에 편찬되었다. 고조선부터 고려에 걸친 통사인 『동국통감』은 편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으며, 단군 조선에서 삼한까지를 외기(外紀), 삼국의 건국부터 669년(신라 문무왕 9)까지를 삼국기, 669년부터 935년(고려 태조 18)까지를 신라기, 이후 고려 말까지를 고려기로 편제하였다.
- ㉣.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중종 때인 1530년에 편찬되었다. 왕명을 받은 이행이 『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보충하여 편찬한 것으로, 현존하고 있다.

16. 다음 자료는 어떤 조약의 일부이다. 이 조약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조. 지금부터 20일을 기한으로 하여 조선국은 흉도들을 잡아 그 수괴를 엄격히 심문하여 엄하게 징벌한다.
- 4조. 흉도들의 포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일본국이 입은 손해와 공사를 호위한 해군과 육군의 군비 중에서 50만 원을 조선국에서 보충한다.
- 5조. 일본 공사관에 군사 약간을 두어 경비를 서게 한다. 병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일은 조선국이 맡는다.
- 6조. 조선국은 사신을 특파하여 국서를 가지고 일본국에 사과한다.

- ①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된 사건 이후에도 청은 조선에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는 한편, 유리한 조건으로 조선과 통상 관계를 맺었다.
- ② 이 조약의 제5조에는 공사관 경비를 위해 약간의 병력을 한성에 주둔시킨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1개 대대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그 비용은 조선에 부담시켰다.
- ③ 이 조약 체결의 결과 일본군의 한성 주둔으로 조선을 둘러싼 청·일의 무력 충돌 위험이 커지면서 불안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표 회의가 열렸다.

19. 정답 : ㉔

해설 아동의 권리 공약 3장이 발표된 때(1923)부터 가장 먼 시기에 있었던 사실(일제 강점기 - 정치사)

제시된 자료는 방정환이 1923년 5월 1일에 진행된 어린이날 기념식장에서 발표한 아동의 권리 공약 3장이다.

㉔ 풍기 광복단과 조선 국권 회복단의 일부 인사가 통합하여 만든 대한 광복회는 1915년에 결성되었다. 대한 광복회는 공화 정체를 목표로 하였으며, 박상진을 총사령을 하여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광산과 우편차 등을 습격하여 일제의 재물을 빼앗고, 부호들에게서 의연금을 걷었다.

오답해설 ㉑ 신채호는 의열단 단장인 김원봉의 요청으로 1923년에 '조선 혁명 선언'을 지어 의열단의 투쟁 노선과 행동 강령을 제시하였다.

㉓ 백정들은 갑오개혁 이후 법적으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편견이나 차별을 받고 있었다. 백정들은 1923년에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형평 운동을 전개하였다.

㉒ 1923년 1월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노선과 활동을 재평가하고 분열된 독립 운동 전선을 통일하기 위하여 국민 대표 회의가 개최되었다.

20. 다음에서 설명하는 위원회가 발표한 원칙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도파의 여운형과 김규식 등은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운동을 전개하였다. 소련과 합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던 미군정도 이를 지원하였다. 이들은 1946년 7월 하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 10월 몇 가지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 ① 한국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따라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한다.
- ② 미·소 공동 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 ③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 위원회에서 심리 결정하여 실시하게 한다.
- ④ 입법 기구의 권능과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본 합작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한다.

20. 정답 : ㉓

해설 좌우 합작 위원회에서 발표된 7원칙(현대 - 정치사)

제시된 자료에서 '여운형과 김규식', '1946년' 등의 내용을 통하여 좌우 합작 위원회에서 발표한 7원칙임을 알 수 있다.

㉓ 좌우 합작 위원회에서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입법 기구에 제안하여, 입법 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하여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오답해설 ㉑, ㉒, ㉔ 좌우 합작 위원회에서는 한국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따라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한다(1조), 미·소 공동 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2조), 입법 기구의 권능과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본 합작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한다(6조) 등을 발표하였다.